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M Lemos orders up to four suezmaxes at Hyundai Samho

지난 주 현대삼호중공업이 수주 공지한 수에즈맥스 탱커 건조 계약 발주자는 그리스 CM Lemos라고 보도됨.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 할 예정이며 이번 계약이 옵션분 2척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됨. 건조할 선박은 스크러버 탑재 예정으로 알려짐. (TradeWinds)

Neda Maritime eyes first order at Daehan in hunt for LR2 tankers

대한조선이 Neda Maritime에 115,000DWT급 LR2탱커 1+1척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조선과 Neda Maritime 측은 현재 선박의 구체적인 옵션에 대해 논의 중이며 6월까지 수주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K Line fleet set to keep shrinking as focus turns to profitability and cutting costs

일본의 컨테이너선사 K Line이 수익성 강화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컨테이너 선대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됨. 회사의 비용절감 노력은 COVID-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보도됨. (TradeWinds)

LNG 해상저장물량 확대

해상저장물량은 겨울철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선박 운항률과 운임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용선 계약률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됨. 4월 말 기준 LNG수입 물량의 약 57%가 선박에 그대로 실려 있고, 4월 수입 물량 2,900만톤 중 1,650만톤이 해상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무인지계차에 5G · AI · AR 결합 "...현대건설기계-KT 'MOU'

현대건설기계는 KT와 12일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스마트 건설기계 · 산업차량 솔루션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힘. 현대건설기계는 이번 MOU가 현대건설기계의 무인지계차 기술과 KT가 보유한 5G 통신,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결합해 진보된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함. (연합뉴스)

두산 '3조 자구안' 돌입…자산매각 1호 '두산 타워'

그룹의 심장부인 두산타워 매각 협상을 시작으로 두산솔루스 등 계열사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됨. 두산 타워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운용사와 7,000억~7,500억원 수준의 계약 앞두고 있으며 두산솔루스에 대하여 공개매각 전환한다고 보도됨. 인력 구조조정도 병행한다고 보도됨. (아시아타임즈)